그리스 비즈니스 … 리조트 하나 짓는 데 20년, 서류만 5000건

릴레이 인터뷰 순서

①한스 마르텐스
유럽정책센터(EPC) 소장

②앙리 로레
프랑스 마귀벨 그룹 회장

③타노스 치메로스
그리스 재창조당 대표

◈타노스 치메로스=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아티스트로, 클래식 기타리스트로도 활동했다. 독일에서 기타를 가르치며 무대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다. 20년 전 '더버스'란 이름의 광고회사를 설립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겸 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정치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이끌어왔다.

"정권이 바뀌어서는 소용이 없다.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그리스의 아티스트 겸 기업인으로 정치 변혁 운동에 뛰어든 타노스 치메로스(50)는 "그리스의 정당들은 깡패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정치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그리스의 비극은 영원히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내년 2월 실시될 조기 총선에 '디무르기아 크사나(Dimourgia Kxana)'란 신당을 만들어 출마할 예정이다. 디무르기아 크사나는 그리스어로 '재창조'란 뜻이다.

-왜 정치에 참여하려 하는가.

"보통 그리스 사람은 열심히 일한다. 지난 30년간 나는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 12시간 이상씩 일을 해왔다. 그러나 공공 부문은 다르다. 그들은 일을 안 한다. 그래도 목소리는 제일 크다. 그들은 매일 거리로 나가 이걸 달라, 저걸 달라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있다. 우리는 놀고먹는 정치인들과 공공 부문 종사자들을 위해 세금을 내느라 짐을 잔뜩 진 노새처럼 헉헉대고 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그리스 정치 체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지난 35년간 그리스 정당들은 깡패 조직처럼 운영돼 왔다. 그들은 정부와 공공 부문의 돈을 흡혀 조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해왔다. 일종의 '고객주의'다. 그 규칙은 매우 복잡하지만 '나에게 돈을 내라. 그러면 내가 네 뒤를 봐주겠다'로 요약할 수 있다. 한마디로 부패가 규칙이다. 공공 부문에서는 그 어떤 일도 부패 없이는 이뤄지지 않는다. 부패 없이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

-국민이 투표를 잘했으면 됐을 것 아닌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좌우를 막론하고 이런 범죄 구조에서 자유로운 정당은 아무 데도 없다. 더구나 그들은 돈과 미디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싸울 방법이 없었다."

-문제는 방법이다. 어떻게 정치 체제를 바꾸겠다는 것인가.

"민주주의에서는 선거가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 스스로 정당을 만들어 총선에 참여할 것이다."

-직접 출마할 생각인가.

"그렇다. 정치는 온몸을 던져 할 수 있는 것이지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당선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회사를 맡기고 정치에 전념할 생각이다. 국회에 들어간다면 우선 국회의원의 경우 3연임, 즉 12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다. 정치 가문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리스에서 정치는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했다. 파판드레우 가문의 3대(代)가 연이어 총리를 했다. 끔찍한 일이다."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물론이다. 지지자들의 자발적 기부로 충당하고 있다. 내가 먼저 돈을 냈다. 우리는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통해 기부와 지출 내역으로 인터넷을 통해 매일 공개하고 있다."

깡패조직 닮은 정치
봉건영주 닮은 2000명이 권력 좌우
어느 정당도 '고객' 외면하지 못해

경제 갉아먹는 정치
뿌리깊은 부패 … 좌·우 의미 없어
정권 교체 아닌 정치를 바꿔야

-재창조당은 좌우 어느 쪽인가.

"그리스 정치에서 좌우 구분은 의미가 없다. 그리스에는 두 개 그룹이 있을 뿐이다. 현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룹과 마지막 남은 1유로까지 빼먹으려는 그룹이다. 그리스에서는 이혼 소송 한 번 하려면 2년 이상 걸린다. 판사든 공무원이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는 정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운업으로 큰돈을 번 바실리스 콘스탄타코풀로스라는 사람이 펠레폰네소스에 '코스타 나바리노'란 대형 리조트를 하나 건설하는 데 20년이 걸렸다. 결국 그는 리조트가 완공되는 것을 못 보고 죽었다. 그동안 그가 제출한 서류만 5000건이 넘는다. 그리스에서 사업을 하려면 1만8000쪽에 달하는 법률과 규정집을 다 알아야 한다. 더구나 그 법규는 매일 바뀐다. 어떤 회계사나 전문가도 그 규정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스 사태는 더 이상 경제 위기가 아니다.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했다. 고강도 긴축이 계속되면서 정리해고와 임금 삭감에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노동자가 임금삭감 등에 반발해 파업에 들어간 아테네 서부의 한 제철소 정문. [아테네 AP=연합뉴스]

"그렇다. 정치는 온몸을 던져 할 수 있는 것이지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당선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회사를 맡기고 정치에 전념할 생각이다. 국회에 들어간다면 우선 국회의원의 경우 3연임, 즉 12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다. 정치 가문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리스에서 정치는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했다. 파판드레우 가문의 3대(代)가 연이어 총리를 했다. 끔찍한 일이다."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물론이다. 지지자들의 자발적 기부로 충당하고 있다. 내가 먼저 돈을 냈다. 우리는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통해 기부와 지출 내역으로 인터넷을 통해 매일 공개하고 있다."

깡패조직 닮은 정치
봉건영주 닮은 2000명이 권력 좌우
어느 정당도 '고객' 외면하지 못해

경제 갉아먹는 정치
뿌리깊은 부패 … 좌·우 의미 없어
정권 교체 아닌 정치를 바꿔야

-재창조당은 좌우 어느 쪽인가.

"그리스 정치에서 좌우 구분은 의미가 없다. 그리스에는 두 개 그룹이 있을 뿐이다. 현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룹과 마지막 남은 1유로까지 빼먹으려는 그룹이다. 그리스에서는 이혼 소송 한 번 하려면 2년 이상 걸린다. 판사든 공무원이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는 정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운업으로 큰돈을 번 바실리스 콘스탄타코풀로스라는 사람이 펠레폰네소스에 '코스타 나바리노'란 대형 리조트를 하나 건설하는 데 20년이 걸렸다. 결국 그는 리조트가 완공되는 것을 못 보고 죽었다. 그동안 그가 제출한 서류만 5000건이 넘는다. 그리스에서 사업을 하려면 1만8000쪽에 달하는 법률과 규정집을 다 알아야 한다. 더구나 그 법규는 매일 바뀐다. 어떤 회계사나 전문가도 그 규정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럽 다른 나라들의 사업 관련 법규는 30쪽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이처럼 복잡한 법규의 덫을 놓은 것이다."

-이달 초 출범한 거국내각이 제대로 굴러가면 그리스가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

"그리스의 권력은 정부에 속해 있지 않다. 그리스 전국에 걸쳐 있는 약 2000명의 네트워크가 권력을 쥐고 국가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 ／ 들은 중세의 봉건영주 같은 존재들이다. 이들이 그리스 문제의 근원이지만 각 정당도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 모두 특정 정당과 연계된 고객들이기 때문이다. 자기 고객을 상대로 싸울 순 없는 일 아닌가. 만일 지금의 과도 거국내각이 3개월이 아니라 2년 정도 유지된다면 정치적 안정이 올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당장 내년 2월 선거가 있다. 필요한 개혁 조치를 3개월 안에 해치울 순 없는 일이다."

-내년 총선 후에도 거국내각이 지속될 수 있지 않은가.

"그래본들 나쁜 재료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국가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며 계속해서 도적질을 하는 것이다. 나쁜 제도는 스스로 재생산된다. 내가 부패하면 나도 부패한 사람을 뽑게 된다. 그러면 그들은 또 다른 부패한 사람을 뽑는다. 그리스가 바뀌려면 정치 체제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

아테네=**배명복** 논설위원·순회특파원
bmbmb@joongang.co.kr

현대차 살 때 KB카드 못 쓰는 까닭

"내달부터 수수료 내려라"
현대차, 카드사에 최후통첩
거절한 KB 4일부터 결제 안 돼
6개사는 요구 받아들이기로

카드 수수료 전쟁에 카드사의 '큰 고객'인 현대자동차가 뛰어들었다. 지난 10월 카드사와 가맹점의 힘겨루기가 시작된 이후 대기업으로는 처음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7개 전업카드사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12월 1일부터 모든 차종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을 낮춰 적용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현대자동차는 카드사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재 1.75%에서 1.7%로, 체크카드는 1.5%에서 1.0%로 내리라고 요구했다.

최근 카드사는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8%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현대차의 요구는 중소가맹점보다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지난달 말 계약이 끝난 KB국민카드는 고심 끝에 이를 거절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가 제시한 인하 폭이 너무 커서 지금까지도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4일부터 현대차를 구입할 때 KB국민카드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나머지 카드사 6곳(신한·현대·삼성·롯데·비씨·하나SK카드)은 현대차 요구를 받아들일 계획이다. 카드사로서 현대차는 놓칠 수 없는 고객이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구매에 쓴 카드 이용금액은 20조원 정도다. 카드사가 올리는 가맹점 수수료 이익만 약 3000억원에 달한다. 현대차의 국내 자동차시장 점유율은 40%가 넘는다.

현대차 관계자는 "자동차는 건당 결제 금액이 큰 상품인데, 카드사가 원가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를 떼어갔다"며 "특히 연체 위험이 없는 체크카드는 큰 폭의 인하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율 인하 압박에 시달리던 카드사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단숨에 1%까지 낮춰달라는 것은 수수료 수익의 3분의 1을 내놓으라는 얘기"라며 "당장에 다른 대기업이나 중소가맹점의 추가 인하 요구도 밀려들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위원은 "대기업이 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경우 카드사의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은 줄어든다"며 "앞으로 가맹점 규모에 따른 수수료율 격차가 더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현대차의 요구를 받아들인 카드사는 고객의 혜택을 점차 줄일 전망이다. 현재 카드사는 체크카드로 자동차를 일시금으로 결제하면 전체 금액의 1.2~1.5%를 캐시백이나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김혜미 기자 create@joongang.co.kr

'선발투수' 무죄 선고받았지만 …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

뉴스분석

12개 증권사 대표 'ELW 소송'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 거래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 노정남 사장의 무죄가 확정되자 금융투자협회 황건호 회장은 노 사장과 뜨거운 포옹을 했다. 이날 공판은 앞으로 예정된 11개 증권사의 ELW 소송 결과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업계의 눈과 귀가 쏠렸다. 금융투자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황 회장과, ELW 소송의 '선발투수'로 나선 노 대표는 그간 무거운 짐을 덜어놓게 됐다. 〈본지 11월 29일자 21면〉

7개월간 치열하게 전개됐던 ELW 소송의 첫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증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증권가에서는 비슷한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인 11개 증권사도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환호하기에는 이르다. 12개 증권사 사장 중 한 명, 그것도 1심 판결이 끝났을 뿐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29일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소가 계속 이어질 경우 공판은 2~3년 이어질 수 있다. 한 증권업계 대표는 "판사들마다 판단이 다르고, 1심 판결이 뒤집힌 적도 많다"며 "재판에 따른 업무 공백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증권사가 스캘퍼에게만 직접전용주문(DMA)을 허용한 것의 위법인지 ▶스캘퍼가 좀 더 빨리 거래를 해 다른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증권사들이 스캘퍼에게 전용서버 등을 제공한 것이 일반 투자자를 '차별대우'한 것이라고 봤다. 그리고 이런 특혜가 일반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DMA가 수익 기여도가 높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이며, 스캘퍼와의 경쟁 때문에 개인이 손실이 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증권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증권사마다 기소 내용이 세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까지 파급될지는 단언하기 힘들다. 실제 증권사의 방화벽 시스템과 거래 체결을 주도한 스캘퍼의 거래 방

법원 "스캘퍼 특별우대 아니다"
검찰선 "축구-육상 구별 못한 것"
항소 이어지면 재판 2~3년 끌 수도
금융당국선 감독·규제 대폭 강화
당분간 ELW시장 위축 불가피

식 등이 증권사별로 차이가 난다. 또 상대적으로 혐의가 미미한 대신증권에 대한 판결을 스캘퍼를 위장 취업시키거나 수수료 중 일부를 스캘퍼에게 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한 다른 증권사에까지 똑같이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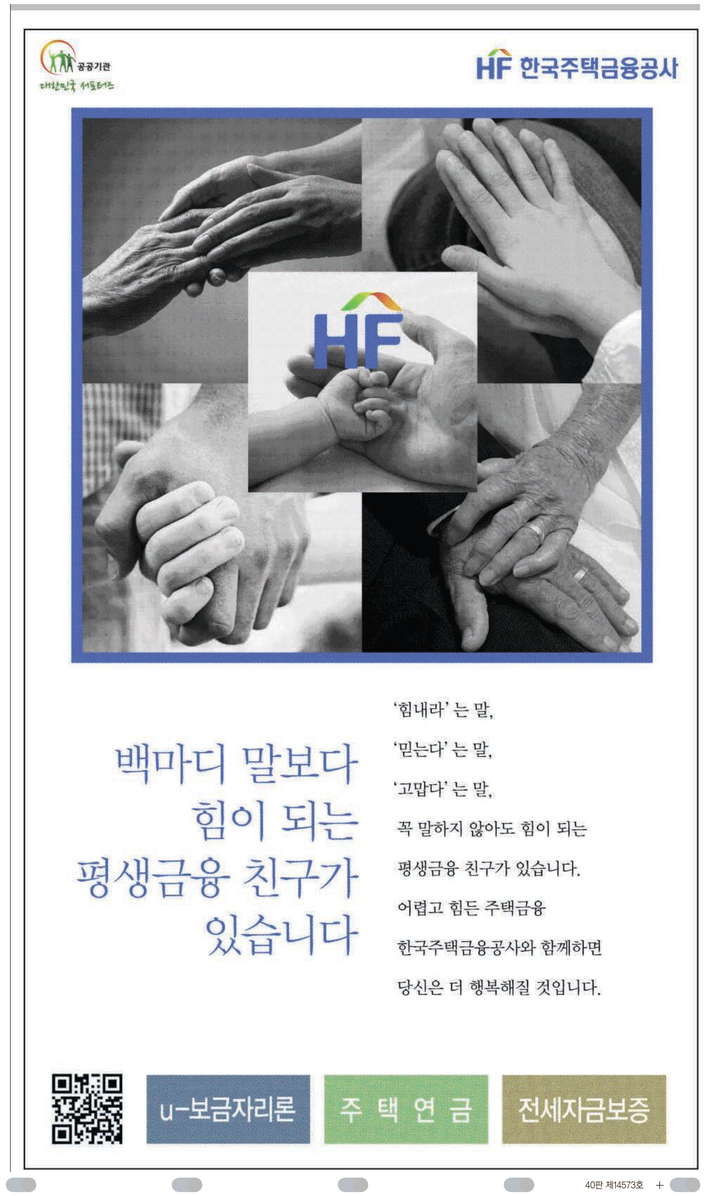
당장 검찰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서울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축구경기와 육상경기를 구분 못한 판결"이라며 "몸싸움이 없는 경기를 몸싸움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일반투자자와 스캘퍼의 주문은 총돌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그는 이어 '법 규정에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매출을 줄여 탈세하지 ／

아직 환호는 이르다

／ 말라는 법조항은 없다"며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규정만 있을 뿐"이라고 비꼬았다.

일단 법적으론 면죄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ELW 시장 위축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 당국에서 '개미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쓴 ELW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1500만원의 ELW 기본예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ELW 거래량은 1조3091억원(25일 기준)으로 지난해(1조6374억원)에 비해 20% 줄었으며 상장종목수도 8016개로 지난해보다 1000개 이상 줄었다.

증권업계는 특히 재판부가 "ELW 시장의 문제점은 금융감독기관이 충분히 검토한 뒤 정책적·행정적 규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 당국이 기소 대상 증권사에 대해 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최창규 연구위원은 "그래도 이번 판결이 ELW시장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오해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만약 유죄판결이 났다면 시장이 더 크게 타격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 이후 위축된 ELW 시장

손해용 기자 hysohn@joongang.co.kr